



달성화석박물관 전경



##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 박물관 '달성화석박물관' 정식 개관

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약 3주간의 사전개관을 마무리하고 지난 16일(수) 오후 2시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.

달성군은 국·시비 75억 원 포함 총 265억 원을 투입, 유가읍에 대지면적 8,980㎡, 건축연면적 6,042㎡, 지하 1층~지상 4층 규모의 달성화석박물관을 조성했다.

박물관은 국내·외 화석 및 암석 2만여 점, 보석원석 1천여 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. 공룡발자국 화석, 해양생물 화석, 스트로마톨라이트·삼엽

충·고래뼈 표본 등 다양한 볼거리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. 내부 시설은 상설 전시실, 화석도서관, 교육체험실, 카페 및 기념품점, 다목적실 등으로 이뤄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달성화석박물관 건물은 매력적인 내·외관 디자인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. 최근에는 제33회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.

정식개관 후에는 개인·단체 방문객 모두 시설 전체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. 11월부터 학생 등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

램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. 교육 신청은 전화(☎053-659-4900)로 문의하면 된다.

앞서 달성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전개관을 통해 내부를 공개했다. 이 기간 유치원, 학교 등의 단체 관람객을 포함한 방문 인원은 3,200여 명으로, 하루에 많게는 200명 이상이 박물관을 찾으며 호응을 얻었다.

달성화석박물관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전화(☎053-659-4900) 또는 공식 홈페이지(<https://fossilmuseum.dssiseol.or.kr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<자료제공:달성군청>

## '꿈! 더 높이 날아올라展' 학생작가전

초·중·고 17명 작품 250여 점 선보여... 10월 25일(금)까지

대구광역시교육청(교육감 강은희)은 10월 25일(금)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e-갤러리에서 2024 대구학생작가전 '꿈! 더 높이 날아올라展'을 개최한다.

올해로 다섯 번째로 열리는 학생작가전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'1학생 1예술 활동'의 일환으로, 학생들의 미술작품 창작 및 감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작품 전시회다.

개인부스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5월에

공모를 통해 선정된 ▲초등학생 3명, ▲중학생 4명, ▲고등학생 10명 등 총 17명의 학생작가가 참여해, 1인당 15점 내외로 2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.

색연필로 그린 가벼운 드로잉부터 연필이나 펜, 수채물감, 디지털 드로잉 등으로 다양한 재료와 디지털 매체의 특색을 잘 살린 학생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.

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 등 누구나 현장 관람이 가능하

며, 전시 내용과 학생작가 인터뷰 등은 대구시교육청 및

학생문화센터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 교육용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.

강은희 교육감은 "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, 내면 성찰, 현대사회를 바라보

는 진지한 생각이 표현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 것이다."라고 말했다.

<자료제공:대구시교육청>



<p><b>일일특가는 하이라이트TV</b></p> <p><b>최고다 이은신</b></p> <p>본방 월~금 9시 30분 재방 월~금 18시 30분</p>	<p><b>인어아가씨</b></p> <p>본방 월~금 12시 30분 재방 월~금 21시</p>	<p><b>황금신부</b></p> <p>본방 월~금 15시 재방 월~금 23시 30분</p>
---	--	---